

# 의사 조력 자살의 부당성

철도경영학과 202310291 김정민

## 1. 서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이다. 안락사는 시술 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료수단에서 일반수단과 특수수단을 사용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또한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인 안락사와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 조력 자살은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된다. 최근 안락사 논의의 경향을 보면, 안락사의 허용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시술 방법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안락사는 “죽을 권리”에 대한 운동으로서 종래의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넘어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확대되어 합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안락사는 시대변화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육체적 고통제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안락사의 종류와 관점, 생명의 가치,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 조력 자살,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측면에서 알아볼 것이다.

## 2. 본론

### 2-1. 소주제

고통이나 삶의 질 보다 생명 그 자체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생명 자체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생명 자체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이며, 그 자체로 가치 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선의 추구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인 합리적 존재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필요한 의료 처치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생명을 종결시켜서도 안 된다. 자율적인 합리적 존재라는 지위는 우리에게 내재적인 존엄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내재적인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행복의 가능성을 단번에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죽음은 유일회적이며 되돌이킬 수 없기에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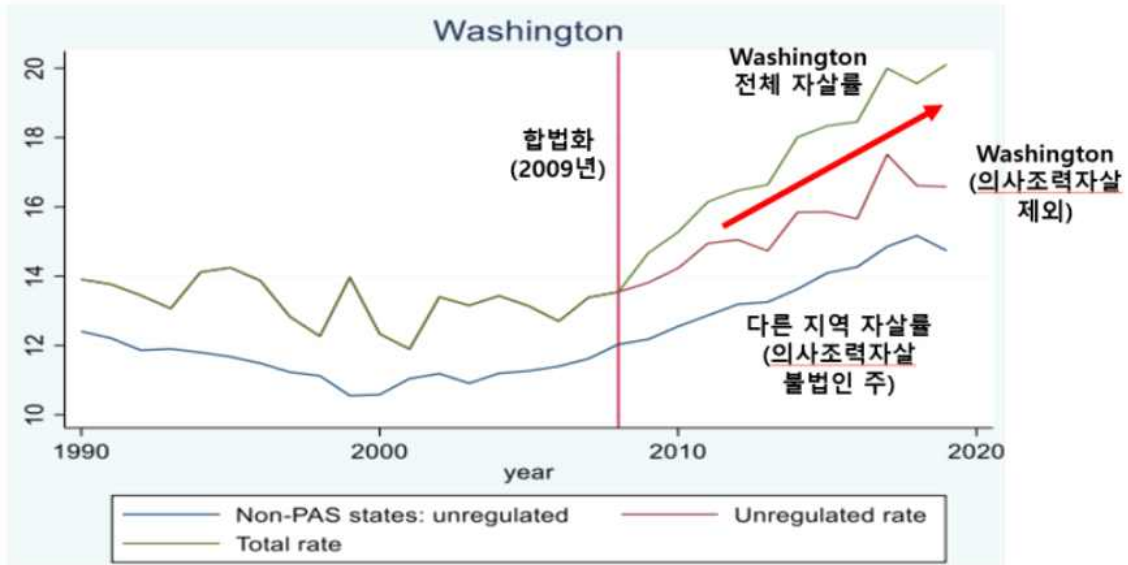
### 2-2. 소주제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살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전체 자살률이 증가했다(미국의 경우, 6.3% 증가). 의사 조력 자살을 제외한 비조력자살로 국한해도 자살률 증가가 관찰된다(미국의 경우 1.1%). 자살률 증가는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관찰됨<sup>2)</sup>

1)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 조력 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1집, 170쪽

2) 허대석,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 속의 ‘의료’, 2022년 8월 26일 수정, 2023년 5월 18일 접속, <https://blog.naver.com/dsheokr/222858773798>

##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전후의 자살률 변화 (미국 Washington주)



### 3. 반론/재반론

#### 3-1. 반론

의사 조력 자살과 연관된 윤리적 정당성 문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자기 신체에 발생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죽음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의사는 죽음을 결정하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브록은 자발적 안락사와 자살 조력을 합법화하는 가능한 결과들을 고찰하면서 자기 결정과 개인의 삶의 질은 안락사가 초래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료의 도덕적 중심은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데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자발적 안락사는 의료의 중요한 가치들과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종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즉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할 경우,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환자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요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 하에 요청할 경우,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경우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따라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sup>3)</sup>

#### 3-2. 재반론

그러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간섭주의와 충돌할 경우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섭주의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령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해왔을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환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가 일시적인 감정동요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면, 의사는 선의의 간섭주의를 적용하여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의 도덕적인 결정은 온전하지 못하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는 환자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간섭주의가 적용되는

3)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 조력 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1집, 171쪽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해왔을 경우라도, 의사는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선의의 간섭주의에 입각하여 선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율권 존중의 원칙보다 선의의 간섭주의가 더 우선하는 상황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을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 보다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생명의 존엄에 기초한 보다 큰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될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sup>4)</sup>

#### 4. 결론

위에서 안락사의 종류와 관점, 생명의 가치,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 조력 자살,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점들을 알아보았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언제나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락사에 대한 결정은 책임윤리의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안락사의 결정에서 전문인 의사들의 역할을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들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남용을 초래하며 의료 직업의 통전성을 파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락사와 같은 의료윤리의 문제들은 사회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의 장을 통해 안락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는 생명 존엄성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경우, 중요한 전제조건은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sup>5)</sup>

의료기술의 목적은 유일회적인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안락사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 5. 참고문헌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 조력 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1집, 155-187쪽

허대석,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 속의 ‘의료’, 2022년 8월 26일 수정, 2023년 5월 18일 접속, <https://blog.naver.com/dsheokr/222858773798>

4)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 조력 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1집, 172쪽

5) 같은 논문 181쪽